

시신경 손상...방치하면 실명

의료 칼럼

녹내장

녹내장이라고 하면 눈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녹내장의 영어명은 '글로코마' (Glaucoma)로 연한 청록색을 의미하는 고대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급성 녹내장으로 심하게 안압이 상승하고 각막부종이 나타나면 눈의 색깔이 연한 청색이나 녹색으로 보여 녹내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녹내장은 '녹색'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질환으로, 주로 눈의 압력(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점점 약해지면서 보는 범위(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궁극에는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태희 보라안과병원 원장의 도움말로 녹내장의 발생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 녹내장은?

녹내장은 백내장, 노년황반변성과 함께 시력저하를 일으키는 3대 안과 질환 중 하나다.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으므로 병이 어느 정도 이상 경과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므로 백내장과는 달리 완치가 불가능하고 평생 조절해야 하는 까다로운 질환이다.

녹내장은 흔히 고령이나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에서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녹내장은 과거 눈 안의 압력이 상승해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현재는 안압 이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시신경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면서 시야장애를 동반하는 진행성 시신경병증으로 이해하고 있다.

안압은 정상이면서 시신경이 죽어가는 정상안압녹내장이 한국에서는 70%가 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상안압이라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 발생 원인

녹내장의 원인은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의 손상이다. 시신경 손상이 진행하는 원인은 안압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눌러 손상된다는 것과 시신경으로 공급되는 혈류에 장애가 생겨 손상이 된다는 것으로 나뉘어 진다. 그러나 현재 병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안압이 높거나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근시를 가진 사람, 스테로이드 점안약을 장기간 투여한 경우, 노화가 진행될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태희 보라안과병원 원장이 녹내장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보라안과병원 제공

초기 증상 없어 조기발견 중요

시력 저하·시야 협착 증상 호소

안압상승 혈류손상 완치 불가능

40세 이상 1년에 한번 검진 필요

◇ 증상

녹내장의 초기 증상은 없다. 대략 40~50% 이상의 시신경 섬유 손상이 있어야 시야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녹내장 증상을 본인이 자각할 때쯤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가 많다.

녹내장은 급성(폐쇄각)과 만성(개방각)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급성 녹내장은 전체의 약 10% 정도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서 시력저하, 충혈, 구토, 눈과 머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급격한 증상이 발생해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녹내장환자의 대부분은 만성 녹내장 형태로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보통 한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반대쪽 눈의 시야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환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야손상이 많이 진행될 경우 시력저하 및 시야협착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 치료법

급성 녹내장은 빨리 안압을 떨어뜨려 시신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종류의 안압하강제를 투여하고 고삼투압제를 정맥주사해 안압을 급격히 떨어뜨린 후 상황에 따라 레이저 홍채절개술이나 백내장 또는 녹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

만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시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 안압하강제를 점안하는데 이러한 안압하강제의 장단점과 부작용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안압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시신경손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녹내장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의 목적은 안압의 조절 및 실명의 예방이며,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복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녹내장 치료를 제대로 하면 평생 법적 실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은 5%에 불과하다. 따라서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다.

◇ 주기적 검사 필수

지속적인 안약사용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고 외출하거나 목이 아플 때에도 약물을 빠짐없이 계속 사용해야 한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안약을 사용할 때는 적어도 5분 이상 기다린 뒤 두 번째 안약을 사용해야 한다.

약물이 다 떨어지기 전 안과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야 하고 예약날짜를 꼭 지켜 녹내장 전문의에게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 녹내장으로 발생한 시신경 손상은 치료로써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고 더 이상의 시신경 손상을 막거나 추가적인 진행을 늦추기 위해선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안압검사와 시신경검사를 통해 녹내장 의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리=최환준 기자



도움말

이태희 원장

보라안과병원

뇌사판정 환자들, 10명에 새 생명 선물

장영근·김양신씨 등 4명 장기기증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은 50대 2명과 60대 2명이 모두 10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1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장영근씨(67)는 지난 6일 남구 방림동 라인호진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했다.

이후 장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10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통해 2명의 환자들에게 신장을 각각 이식했다.

장씨는 지난 10년간 폐지를 주우며 생활했다. 가정을 꾸리지 않고 청각과 언어 장애를 지닌 친형 가족과 함께 지냈다. 동생인 장주섭씨(64)는 “형님이 돌아가신 후 형님 동네 편의점에 들렀는데 주민분들이 ‘갑자기 형님이 안보여서 매우 걱정된다’며 안부를 많이 물었고 함께 슬퍼해줬다”며 “평생 공장에서 일하고 폐지를 주우며 동생의 학비까지 보태준 착한 형님인 만큼 하늘나라 가서는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증자 김양신씨(58)는 지난 13일 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응급실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뇌사에 빠졌다. 이후 김씨의 가족은 장기기증에 동의해 지난 17일 3명의 환자들에게 간장과 신장을 기증했다. 동생 김양민씨



최근 전남대병원에 장기기증을 한 고 장영근씨(오른쪽)와 동생 장주섭씨.

(57)는 “형님과 명절에 장기기증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기증이 의미있겠다’라는 말씀이 떠올라 전남대병원의 제안에 동의했다”며 “장기기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엄 모씨(여·55)는 지난 5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뇌사판정을 받고 지난 2일 3명의 환자에게 간장과 신장을 기증했으며, 김 모씨(60)도 지난 10일 장기기증을 통해 2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최환준 기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건립공사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화순전남대병원-시공업체, 산업재해 제로 협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삼일기업공사 등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시공업체들과 ‘센터 건립공사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사 진행시 안전수칙 이행을 최우선하는 ‘선 안전, 후 시공’을 다짐했으며, 10대 안전수칙을 준수해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공업체들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성실히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받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최환준 기자

조선대병원, 나담축제로 진료부스 운영

조선대병원은 최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나담축제’ 행사에 참여해 몽골 유학생, 이주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상담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조선대병원은 신장내과 신병철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을 파견해 부스를 운영하며 병원홍보 및 이벤트를 진행하고 진찰, 진단 등 진료·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조선대병원은 ESG 경영을 모티브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보호,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없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주제로 우리사회에 선순환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에코주머니 제공 및 SNS 게시를 통해 ‘Human and Earth Re: cure Together Campaign’을 진행했다.

/최환준 기자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병원

죽부센터
어깨/팔꿈치센터
척추센터
무릎센터
소아청소년과

수원센트럴병원
SUWAN CENTRAL MEDICAL CENTER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6 (신가동 1159)
대표전화 062) 950-97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보건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아간상담운영(매주 수요일 17:00~20:00)

동구 필문대로 365
전화 222-9030(금연성공)

SANGMU SU DENTAL CLINIC

상무수치과의원
SANGMU SU DENTAL CLINIC

- 명품 임플란트, 보톡스, 턱관절 전문의
- 사랑니 발치 전문의
- 레이저 무통 수술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DY빌딩 2층, 상무역 1번 출구
상담전화: 062) 371-4028, 5028

www.kshosp.com

KS+ KS병원

수원 신도심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으로
Green Hospital을
지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양버들로 220
대표전화 062) 975-9000 응급실 062) 975-9119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